

## 사카에마치 긴텐 거리

일본의 도시에는 ‘상점가’라고 불리는 쇼핑 스트리트가 있습니다. 상점가 입구에 장식된 아치형 게이트가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. 보통 철도역이나 버스 터미널 근처에 있으며, 비가 내려도 편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지붕이 달려 있습니다(아케이드 상점가). 상점가의 기원은 상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된 16 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

상점가는 1950 년대에 가장 번영했으며, 21 세기에 들어서기 전까지 생활필수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축제 등 지역 활동의 중심지로 지역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. 그러나 최근에는 교외 쇼핑몰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며 쇠퇴의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.

1957 년에 지어진 사카에마치 긴텐 거리는 사쿠라마치 거리에서 산바시 거리까지의 약 300m 에 걸쳐 있습니다. 모지가 번영했던 다이쇼 시대(1912~1926)에 이 상점가는 화려하고 패셔너블한 거리였습니다.

최근에는 쇼와 시대(1926~1989)를 연상시키는 그리운 가게 구조와 애수가 감도는 빛바랜 아름다움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 오래된 상점가를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생선가게, 미용실, 일본술 전문점, 룝 바 등 옛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한 노포부터 새로운 가게까지 개성적인 가게들이 즐비합니다.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소프트크림 가게 ‘바이게쓰’는 현지의 명물입니다.